

● 2023. 11. 19(일) 09:00 경. 4호선 '상계역'에서 등산을 시작 합니다. 오늘은 "불암산"을 "○○○ ○○○" 밴드 산악회와 함께 산행을 해 봅니다. 최근, '북한산(北漢山)'을 혼자 다니다 보니 ... 암벽 릿지와 슬랩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... 최근 산행 경력이 풍부한 신규 산악회에 가입을 했어요!

09:00시 정각 '상계역'에서 밴드의 대장님을 만났는데... 他 밴드 산악회와 Join/합류를 하여, 총 6명이 함께 산행을 합니다. 오늘 릿지와 슬랩 초보인 저에게는 기대가 되지만... 산행 경력들이 풍부하신 산악회 분들에서 민폐(?)가 되지 않도록 산행을 같이 해야 겠습니다. 그럼, 산행기를 같이 확인해 보시지요 ~ !! (※ 하도, 정신이 혼미해서... 산행기 앱. 커는 것도 잊었습니다. 둘레길 중반부에 컷으니,,, 대략 산행거리는 8.0km)

SKT 7:22 76%

← 운동정보

[불암산] 상계역~전망대~영신A
슬랩~B~명왕봉~불암산성~참기
름바위~정상~석장봉~일자바위
~산머루 산다래암장~나들이철
쪽동산~당고개역

토파즈113 LV 45
2023-11-19 14:46:57 조회 0

따라가기

그날의 날씨는? 서울 노원구
2.0° / 15.0°C

코스 정보

6.67km | 5시간 27분

공유하기 | 다운로드 0

SKT 7:23 76%

← [불암산] 상계역~전망대~영...

운동 거리 6.11km
운동 시간 5시간 26분 AI 시간예측 2시간 17분

내비 | 역방향 | 따라가기

SKT 7:23 76%

← 운동정보

운동 정보

운동 시간	운동 거리	
05:27:46 초	6.67 km	
평균 속도	평균 경사도	누적 고도
1.2 km/h	17.7 %	543 m
소모 열량		
1,939 kcal		

공유하기 | 다운로드 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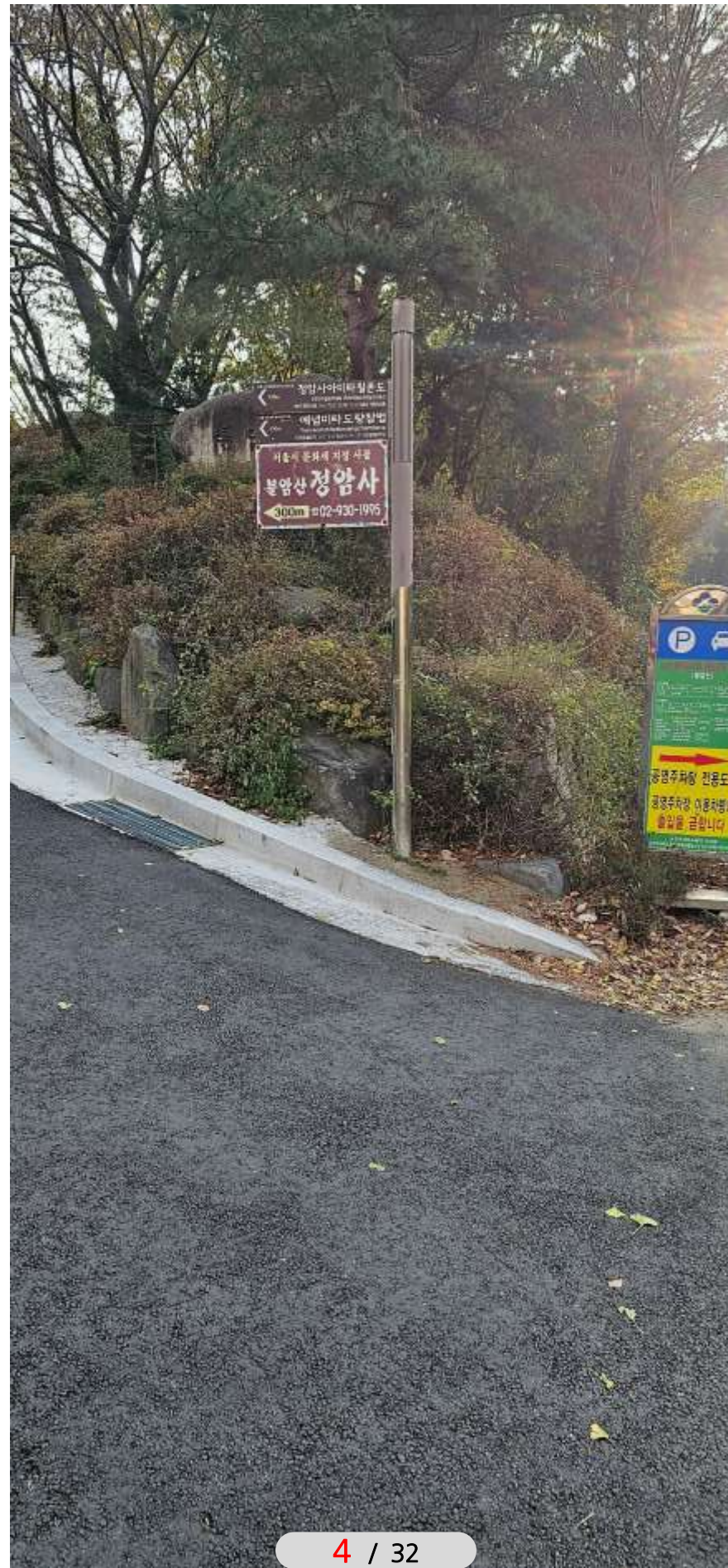
● [상방향] 상계역 ~ 상계 제일중 ~ 제현중 ~ 돌레길 ~ '불암산 전망대' ~ "영신 A 슬랩" ~ "영신 B 슬랩" ~ 해골바위 ~ 명왕봉(明王峯) ~ 불암 산성 ~ 두꺼비 바위 ~ 정상



● [하방향] 불암산 정상 ~ 석장봉 ~ '일자 바위' ~ 산머루 산다래 암장 옆 길 ~ 상계 나들이 철쭉동산 ~ 당고개역 ~ 산행 종료 * 초록색은 오늘 처음 가본 곳 !!



- 지하철 4호선 “평촌역” 에서 ‘상계역’ 까지는 무려 31개 역이 있습니다. 소요 시간은 거의 75분 걸립니다.
/ 09:00 에 만나기로 했으니... 서둘러 7시 24분 기차를 탑니다. 다른 밴드 산악회와 Join 하여, 총 6명이 오늘 산행을 하게 되네요... 이 지역을 잘 모르니 양해를..



● ‘불암산과 수락산의 등산 안내도’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.

새로 가입한 “○○○ ○○○” 산악회 대장님과 오늘 처음 합류한 타 밴드 산악회 뒷 꿈무니만 잘 따라 다녀야 합니다. ㅋㅋㅋ
 뭐, 저만 제외하고 5명을 서로 잘 아는 사이 랍니다. ㅎㅎㅎ



- 보이는 바위는 전혀 남근석 같지 않은 “남근서 바위” 라고 합니다. ㅎㅎㅎ
‘관악산’ 파이프 능선이나 ‘사당 능선’ 오시면... 확실한 남근석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. ~~~!!! 아 참! 삼성산 호암(虎岩) 근처 전망대에는 천하제일도 있습니다.



- 아마도, 불암산 영신 “A 슬랩” 을 타러 가기 위해서, “불암산 둘레길”을 이용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
/ 일요일 아침 시간이라,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시는 주민(?)들도 많이 계시네요 ~~~ 가까운 산 근처 사시는 분들은 매우 행복하신 것 같네요 !!!



- 새로 생겼다는 '전망대' 위에도 올라가 봅니다... 입장료가 없이 무료 거든요 !!! ㅎㅎㅎ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.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.



-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. 2장의 사진을 연결해 봅니다.

불암산 “영신 슬랩” !! 우와! 이런 모습이네요 ~~~
오늘은 A 슬랩 ~ B 슬랩 만 오른 다고 합니다.

왠지! 영신... 제 첫사랑이 “○영신!” 이었는데...
88 올림픽 피켓 Girl “베트남”을 들었답니다... 인연이 안되어 88년도 12월 각자 서로의 길을 갈다는... 헤어짐을 속이 쓰렸다는...

오늘 하필이면... 영신이를 올라 가네요 카카카 !!!



- 오늘 저만 처음으로 참석을 한 것 이고...
다 같이 자주 모이는 모임입니다.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~



- 그나 저나... A 슬랩이 제일 쉽다는데... 이 곳에서 바라보니 경사도가 만만치 않네요...
참고로, 저는 북한산 의상봉 “연습 슬랩”과
‘선림 슬랩’ 인줄 알고 ‘오산 슬랩’을 잘 못 올라... 엄청 개 고생(?)한 경험만 있습니다 !! ㅎㅎㅎ



- 슬쩍!
겉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...

생활 릿지 정도 하는 산객이... 슬랩을 올라야 하는 고통(?)은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 답니다.
그러나, 북한산이나 도봉산을 다니게 되면, 자연스럽게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네요... 오늘도 좀 긴장을 하면서, 마음에 영 내키지 않으면 후퇴(?)를 할 각오 입니다.



● 공룡 바위 라고 하는 데...

아무리 봐도 “익룡” 인것 같습니다. ㅋㅋㅋ



- 드디어,
“영신 A 슬랩” 들머리에 도착을 해서….

올라갈 준비를 합니다.

우씨! 경사도가 ‘오산 슬랩’은 저리 가라는 수준 입니다. ㅎ미 !!



● 허걱!
무슨 사전 설명이나 ... 주의 사항 없이 ... 모두 오르기 시작합니다...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...

아니, 저는 어찌라고...

뭐, 저도 쿵쾅 거리는 심장(?)을 진정 시키면서... 따라 오르기 시작을 해야죠 !!! 뭐 !! ㅋㅋㅋ



- 약 10분을 올라 갔나 ?
그래도 중간에 쉬터(?) 같은 게 나와서 다행입니다.

초반 너무 급격한 경사도를 오르니 ... 다리 종아리가 땡기려고 시작 했었거든요...ㅋㅋㅋ



- 거짓말 안 보태고...
거의 40m 이상을 치고(?) 올라 온 것 같습니다. 저 말고는 다들 잘 올라 가시네요... 꾀 !!!



● ㅎㅎㅎ 또, 50~60m 를 올라 갑니다. 다들 경험들이 많으셔서, 잘 올라 가시는데……..

저는 이 곳에서 보조 자일을 깔아 줄 꺼라고…. 착각(?)을 했습니다. ㅎㅎㅎ
전부 “각.자.도.생.” 이었습니다. ㅋㅋㅋ



● 할 수 없이... 이제는 집에 돌아 갈 수도 없어서... 따라 올라 갑니다.

우와!

드디어, 저도 홀로(?) 힘으로 “영신 A 슬랩” 전 코스를 올라 와 봅니다. ㅎㅎㅎ

저 끝은 채석장 이었다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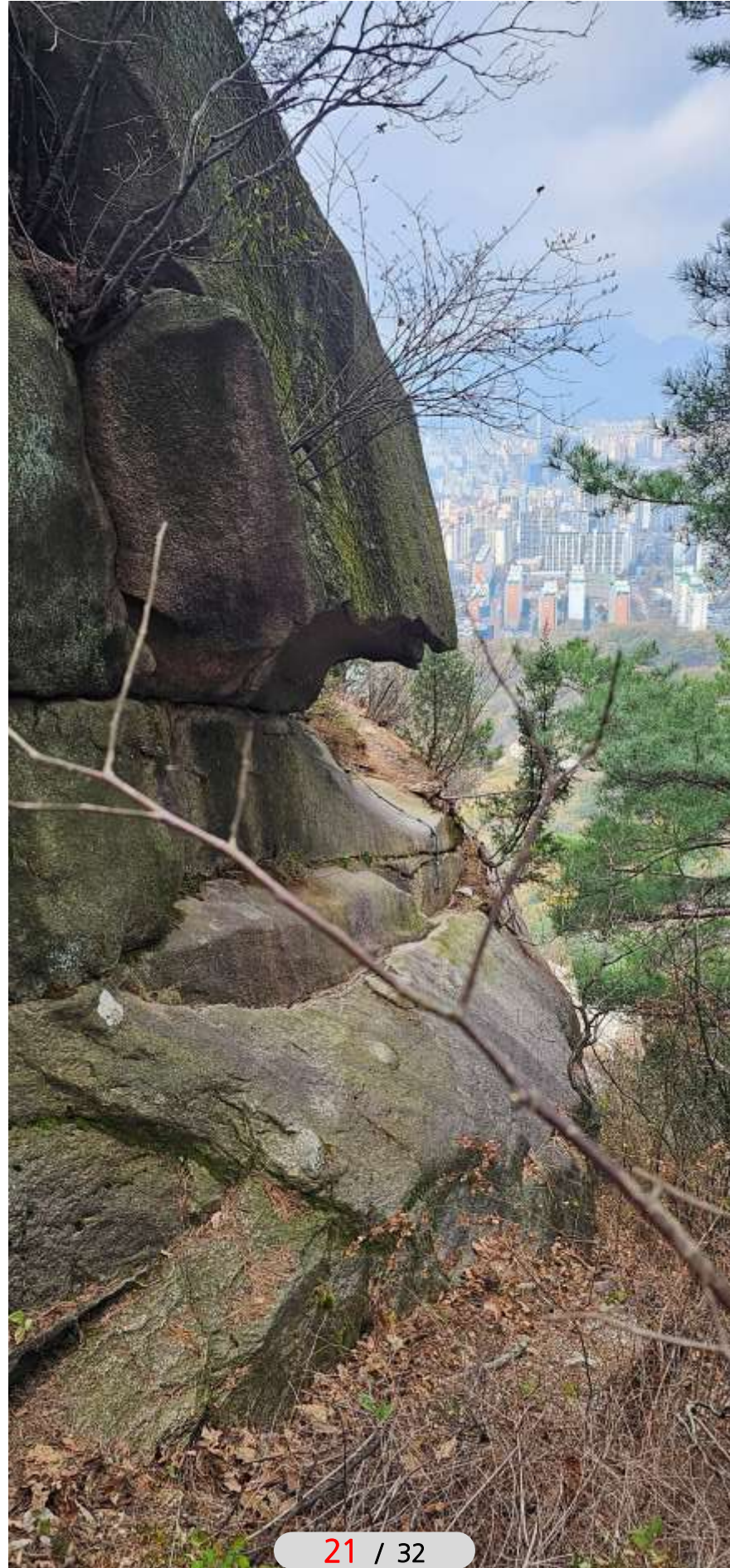


- 대장님!
친절한 설명을 듣고 보니... 커다란 토끼 모습과 참새바위가
보입니다.. ㅎㅎㅎ

불암산에도 아기 자기한 바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.



- 우회 하는 곳에는 안전한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.
/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가요? “불암상 정상으로 가는 줄” 알았습니다... 이 지역의 지리를 전혀 모르니...ㅋㅋㅋ



● 으혁!
영신 B 슬랩 입구입니다.

아 맞다! 영신 A ~ B 슬랩을 오늘 올라 간다고 했었네요….



- 이 곳은 경사도가 A 보다 더 높고... 초입부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.

저의 릿지화는 1개월도 안 된 신발인데... 초반 슬립이 잠시 와서...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.

죽기 살기 이판 사판 이죠...
신발을 11자 형태로 ...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.

약간 쫄리는 구간이 나오면... 네 발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... ㅋㅋㅋ



- 경험이 많으신 대장님도 자세를 낮춥니다.. 많이 미끌 거리는 구간에는 장사(?)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에 골인 !! 각자의 수준(?)에 맞도록 알아서 올라 가야 하네요... 우런! 우라질 랜드 ^^;



- 이제 저도
가운데로 직등으로 올라가 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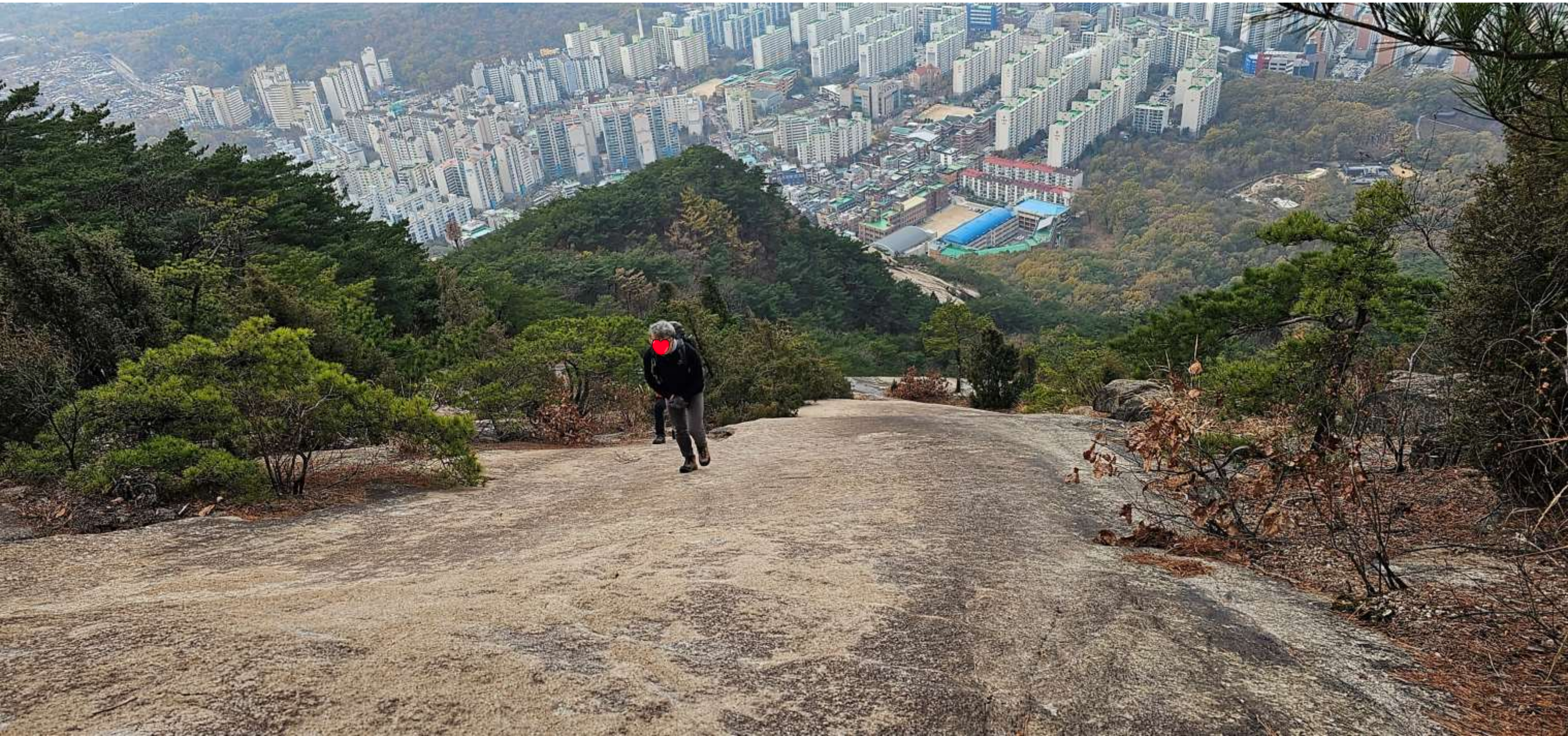


● 거의 마지막 구간 까지 올라 왔습니다.
어떻게 올라 왔느냐 구요? ㅎㅎㅎ

내려갈 수 없으니 ... 죽기 살기로 억지로(?) 올라 온 거죠...ㅋㅋㅋ



● 다들 무사하게 잘 올라 왔습니다.



- 건너 편,
영신 C 슬랩에 3명 정도 산객님들이 오르시고 있는데...

저기는 각이 더 서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. (※ 휴우! 오늘 안 오른다고 합니다...ㅋㅋㅋㅋ)



- 잠시
전망대 같은 곳에 올라와 간식을 먹고 갑니다.



● '해골 바위'를 직등해 넘어 갑니다. 위의 장소는 매우 넓었습니다. ~~~



- 어떤 산악회에서 단체로 갑자기 모여 드네요... 저희들은 자리를 비켜 드리고... 정상 방향으로 올라 갑니다.



- 잠시 등로에서 벗어나... “명왕봉” 에도 들렀다 갑니다. ~~~ 계속해서 2부로 이어 갑니다.

